

# 민선 4기 출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황 일 봉 광주 남구청장

## “3대 발전축 개발 전략 효·복지 선진자치구 도약”

“지난 4년간 우리 남구는 열악한 구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구가 경제·문화·도시·복지 기반이 골고루 발전하는 선진 자치구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촌동 등에 친환경 웰빙도시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는 어르신들, 차상위 계층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급하고, 재활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실질적인 시책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정읍성 국제음악제”로 대표되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현안이다. 제1회 정읍성 음악제의 개최로 지난해 중국관광객 800여명이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정읍성 국제음악제 등 기념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전승문화지구로 지정된 대촌과 효천역 일원, 광주아시아음악타운지구로 지정된 양림·사직공원 일원의 개발이 남구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겠습니다. 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입니다.”

황 청장은 또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33호인 ‘고싸움 놀이’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에 조성될 공동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천과 대촌동 일원에 친환경 웰빙도시를 조성, 지역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데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기대에 부응토록 더욱 노력한다는 각오다.

황 청장은 보성 출신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광주광역시 초대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전 갑 길 광주 광산구청장

## “평동산단 2차 금형단지내 전문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광주 시의회 3선의 원에 국회의원(16대)을 지낸 전갑길 광산구청장(48)은 민선 4기 출범에 발맞추어 ‘주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희망 광산’을 구정 목표로 정했다.



수원지구에 농축산물센터 건립  
자투리 활용 쌈지공원 등 조성

이와 함께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열린 행정 ▲활기 넘친 지역 경제 ▲살맛나는 주민복지 ▲인재양성 교육도시 ▲격조 높은 도시문화 등 모두 5개 분야의 세부방향을 함께 확정했다.

전 청장은 “광산구의 새로운 구정목표는 행정의 민주성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면서, 광산구의 주인은 주민이며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주민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공약사항으로 내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평동산단 2차 1공구 금형단지내에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유치 및 시험생산시설을 구축해 부품소재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된 50개 전문기업을 유치해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수원지구 내에 1만2천 평 규모의 농축산물 유통센터 등 신축 택지개발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을 위해 “어등산, 용진산, 영산강, 황룡강권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보전 및 습지정비를 위한 ‘강변연안 친환경

정비 조례’를 제정해 천혜의 자원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전 청장은 “택지개발 지구는 연차 계획을 수립해 도시경관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 쌈지 공원이나 ‘녹색쉼터’를 조성해 아름답고 편안한 주거문화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청장은 “구정에 참된 민의를 반영해 구정방향이 항상 시민의 여망과 부합되도록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등과 같은 열린 행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별, 분야별 혁신 CEO를 선정해 가정 ‘지역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권위 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관행을 과감히 쇠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대기자 wtkee@

정 종 득 전남 목포시장

## “원·신도심 균형개발 추진 ‘번영과 축복의 땅’으로”

“관광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삼아 목포를 ‘기회와 희망의 땅’에서 ‘번영과 축복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서관 건립·특목고 조기 신설  
내년까지 대불산단 100% 분양

경제시장을 표방하며 재선에 성공한 정종득 목포시장(64)은 민선 4기 시장 운영과 관련 △국 제적 해양·관광·물류 중심도시 건설 △원·신도심 균형 개발 △전남의 행정·문화·예술·교육·체육 중심도시 육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 구현 △인구 100만의 서남권 광역도시 등 5대 역점 시책을 내놓았다.

특히 정 시장은 “신항, 대불항, 복항, 남항 등 5개항을 특화 개발하고, 2007년까지 대불산단 분양률 100% 끌어올리는 한편 목포대교, 삼학대교, 해안일주 관광도로 등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 시장은 원도심은 해양·관광·수산 중심도시로, 하당신도심은 상업·교육·문화 중심도시로, 남악신도심은 행정·체육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발전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도심을 크게 9개 권역으로 나눠 주거 중심형과 도심형 뉴타운으로 재개발하겠다”면서 “하당 신도심은 기존의 상업 중심 기능 위에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달산권·삼학도권·갯바위권·북항권·고하도권 등 5대 관광거점을 집중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북항에는 관광특구 조성하고 함께 230m 높이의 목포타워를 건설하고 유달산~고하도를 연결하는 케이블 카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시장은 목포를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지역인재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도서관을 원도심과 신도심에 각각 3개소씩 건립하고, 원도심에 시립 특수목적고, 하당신도심에 자립형 특수목적고를 신설하는 한편, 남악신도심에는 전남도가 추진 중인 특수목적고를 조기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시장은 행정화 개발하고, 2007년까지 대불산단 분양률 100% 끌어올리는 한편 목포대교, 삼학대교, 해안일주 관광도로 등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 시장은 원도심은 해양·관광·수산 중심도시로, 하당신도심은 상업·교육·문화 중심도시로, 남악신도심은 행정·체육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목표발전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도심을 크게 9개 권역으로 나눠 주거 중심형과 도심형 뉴타운으로 재개발하겠다”면서 “하당 신도심은 기존의 상업 중심 기능 위에 교육·문화 중심도시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달산권·삼학도권·갯바위권·북항권·고하도권 등 5대 관광거점을 집중 개발할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대중 수요에 맞춰 분양가와 임대료를 낮추고, 400여세대 분양

분양	10월 10일 분양	10월 10일 분양
임대	10월 10일 임대	10월 10일 임대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